

예·체능 활동 중심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의 질과 아동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

전 은 경*(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최 보 가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화 현상과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로 인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양질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Posner & Vandell, 1994; Sack, 1999; 여성특별위원회, 2000). 학교 정규교육이 주로 인지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방과후 교육활동은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강조하며 특히, 1999년부터는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아동의 적성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특기를 살리며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한 교육개혁의 중요한 방안이 되고 있다. 학령기의 정서조절은 청소년기, 성인기의 정서조절과 정서발달의 밑바탕이 되며,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그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 시기의 특기·적성 교육활동프로그램 질에 따른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 중 예·체능활동을 중심으로 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현황과 프로그램의 질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시내 7개 초등학교 1~6학년 남녀 아동 224명과 각 학교 특기·적성 예·체능 담당 교사 41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용 질문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질 평가척도, 정서조절 척도, 사회적 능력척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일반 현황에서는 학부모들의 자녀방과후 생활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기대에서는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주체로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 비용부담은 “일부는 정부 일부는 학부모 부담”을 선호하였으며,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 담당희망교사는 “초등학교 교사”, 특기·적성 교육 활동시 중요사항은 “학습보충활동”, 학급운영 형태는 “학년별로 운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정서조절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프로그램의 질 하위영역 중 교사-아동 상호작용, 교육과정에서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정서조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사회적 능력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프로그램의 질 하위영역(건강과 안전, 학습환경, 교육과정, 교사-아동간 상호작용, 일과 계획) 중 교육과정(주도성, 유능성)과 일과계획(사교성)에서 상집단이 하집단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